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24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시정혁신 담당관	담 당 자	• 시정혁신팀장 주우익 ☎440-1641 • 담당자 이길하 ☎440-164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예산편성 위해 시민의견 수렴

- 24일, 2023년도 예산편성 위한 소통행정 분과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 -
- 뉴홍콩시티 마스터 플랜 수립, 제물포 르네상스 등 실행할 예산 반영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시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소통행정분과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이 인천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소통행정분과는 기존 소통협력관서, 대변인, 감사관, 행정국의 4개 관서에서 인천시의 주요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신설된, 시정혁신단, 글로벌도시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등을 추가해 10개 실·국으로 확대됐다.

소통행정분야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각군 시정혁신담당관이 소통행정분과 소관부서를 대표해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내년도 중점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우선, 인천시는 민선8기 목표인 ‘세계 초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자유도시를 가시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성장 동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민선8기 핵심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 사업 구체화에 나선다.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연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글로벌 도시 인천의 미래모습을 공유할 계획이다. 글로벌 도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도 착수해 최적의 그랜드 디자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 재생사업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개항장 일원 스마트관광 도시조성 지원 및 자원특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제물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계획이다.

□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3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소통’을 전면 에 세워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열린 혁신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주요시정 및 정책에 대한 제언 및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혁신과제 발굴은 물론,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운영과 시민정책 네트워크 기능 강화를 통한 소통시스템도 구축한다. 시장이 시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시민행복 소통의 날’과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랜기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은 숙의경청회,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맞춤형 갈등관리를 지원한다.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청년포털 고도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이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인천시 최초로 인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023년도 인천시에 배분될 약 16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책임완화 및 인센티브 지원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한 행정혁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추진 ▲시민체감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 협업강화 ▲소셜 미디어 확대 운영을 통한 시민중심 플랫폼 구현 ▲인천 도시브랜딩을 통한 도시이미지 확산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오병욱 소통행정분과 위원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서민경 소통행정분과 부위원장, 임송희 인천대창업 지원단 실장, 민혁기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소통행정분야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 등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펼쳤으며, 시민의견에 대한 질의답변도 이뤄졌다.

이각균 시 시정혁신담당관은 “전문가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에 대한 생각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시민의견을 적극 검토해 202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분과 소관부서들이 함께 노

력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